

21세기 남성패션에 표현된 성 이미지 연구

A Study on the Sexual Images Expressed in the 21th Century Men's Fashion

이효진* · 김현아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Lee, Hyo Jin · Kim, Hyun A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exual images in the 21th century men's fashion, including phenomenal formativ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Theoretical framework was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Photo images were collected from collections presented in 2001 to 2008 on the internet sites. By focusing on sexual image, men's fashion design was analyzed.

Since 21th century, men have expressed their own fashion sense and sexual image quite freely. Men's fashion has expanded its scope into region which are not exclusively of men's traditional fashion identity real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Noble Dandyism is common among noble dandies whose desired image is luxurious, soft, and sophisticated.

Second, Bisexual Caportism is another appealing 'Youth is beautiful' trend of our modern age. Beyond age and gender, modern people pay a special attention to the Caports look which aims to project an image of healthiness, dynamism, youth, and pure balanced beauty combined with fashion.

Third, Macho Narcissism enjoys showing and exposing well-trained and beautiful bodies, compared to the old masculine image which was more known for expressing an authoritative and dominant strength.

Fourth, Homme Fatale Vampicism seeks to accentuate deconstructed femininity and bare legs, matted make-up, long and curly hair, especially aims to emphasize sexual charms, which naturally makes its image more fascinating.

Keywords : sexual image, noble dandyism, bisexual caportism, macho narcissism, homme fatal vampicism

I. 서론

21세기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문화의 교류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 미의식이 다양한 양상을 띠며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분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은 성의 혼돈과 성의 부재를 표현함으로써 해체적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해체적인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21세기 남성

의 이미지는 고전적 모더니즘에서 절대적으로 규정되어 온 미적가치들이 붕괴되면서 내면적인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지닌 남성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이는 성역할정체감의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는데 2004년 제일기획에서 17~3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성역할 변화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300명 중 남성의 66.7%, 여성의 57.3%가 양성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성성을 추구하는 남녀 각각을 미스터 뷰티(Mr. Beauty), 미즈 스트

* Corresponding author: Lee, Hyo Jin
Tel: 010-8643-3848, Fax: 063-270-3799
E-mail: lehyojin@chonbuk.ac.kr

롱(Ms. Strong)으로 규정했다.

이에 21세기에 들어서 남성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면서 남성의 성역할 변화를 은유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남성패션의 경우도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성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강하고 거친 이미지의 남성보다 부드럽고 섬세한 남성상이 선호되면서 남성패션은 남성들도 아름다워지고 싶은 내적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옷차림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미용 등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남성패션의 시장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남자가 쇼핑하면 남세우스스럽다? 이젠 남자스럽다!”, 2007)

따라서 21세기에는 남성의 성 이미지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부응하여 급변하는 21세기 남성패션의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서, 컬렉션 사진자료를 통한 내용분석은 성역할 변화에 따른 남성의 성 이미지 변화가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므로 국내컬렉션과 함께 살펴보았다. 사진들은 패션관련 매체물에서 우선순위에 속해 있고 남성복 컬렉션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www.samsungdesign.net, www.style.com, www.sfc.seoul.kr 등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사진선정은 정확한 분석과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5명이 세 차례의 검증을 거쳐 선택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다.

그럼으로써 21세기 남성패션에 표현된 성 이미지를 고찰·분석하고 21세기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변화 현상 및 특성을 조형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미래 남성복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 개념의 변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性)이라는 용어는 남녀를 구분할 때에 사용되는 영문의 섹스(sex)와 젠더(gender)라는 용어를 번역한 단어이다. 섹스는 생물학적인 남녀구분인 것에 반해 젠더는 사회적, 심리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한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생물학적 성(sex)이라는 용어를 해부학적, 생리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성별로 나타나는 신체적 차이를 일컫는 것으로써 사용한다. 그 반대로 사회적 성(gender)은 양성간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지칭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남성다움 또는 여성스러움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줄리아 우드, 1998/2006)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데 의복이 사용되어 왔으며 남성은 남성적인 의복을 여성은 여성적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남성은 남성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였고 성별에 따른 역할도 분화되어 다양화됨에 따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성 개념으로 1974년에 심리적 양성성(androgyny)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유기체 내에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성과 남성성의 심리적 특성을 모두 가진 사람을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라 칭했다. 이 앤드로지너스는 복식을 통해 서로의 성적특성을 교차시켜 시각적으로 표출하였으며 두 특성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성과 관련된 의식의 변화는 성역할 정체감의 이분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성의 혼돈양상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2. 시대별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 이미지 변화

본장에서는 남성패션에서의 성 이미지 변화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찰해보았다.

남성복은 산업혁명을 계기로 기능적인 형태, 실용적인 소재도입 등 새로운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두 차례의 세계전쟁은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남성패션에서의 성 이미지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산업혁명 이후 제 1차 세계대전까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후반까지 시대적 구분을 하여 살펴보았다.

1) 산업혁명 이후 제 1차 세계대전까지

남녀의 복식에서 성차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중세 이후

남성복은 화려한 장식과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왔으나 여성적 이미지를 보였던 산업혁명 이전의 남성복이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된 18세기 말은 남성복에 있어 큰 변화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과 같은 역사적 배경은 복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의 민주정치를 구현하였고 이러한 정치이념을 복식에 그대로 반영시켜 신분에 따른 복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로 인해 복식으로 인한 귀족과 시민의 구별은 사라지게 되었고 귀족풍의 화려함은 시민적이고 실용적인 복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복식형태의 변화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방직기와 직기의 발명에 따라 직물을 만드는 기계를 출현시켰고 기계에 의한 직물의 공장생산의 개시는 복식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 때 정립된 남성복의 기본인 재킷, 조끼, 바지, 셔츠, 넥타이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장식과 색채의 과시보다는 몸에 꼭 맞게 재단하여 남성의 신체에 맞는 신고전주의적 경향이 강하였다. 이 시기의 수트는 근대미의 표상이 됨으로써 절대적인 가치를 발휘해 왔으며 남성패션에서 권위성, 강건성, 근대성이라는 미적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었고 전형적인 남성적 이미지로 고정되었다.(이민선, 2003)

산업혁명 이후 남성패션은 경제적, 정치적 힘에서 우위에 있는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 산업화의 중심에 있던 영국에서는 가족의 가치와 개인의 품위, 자존심, 적절한 여가문화가 중시되었는데 이러한 가치관은 상류층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어 계급과 지위를 나타내는 외양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김윤경, 이경희, 2002)

이처럼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남성복은 장식성을 배제하여 단순하고 검소해져 기능적인 형태가 되었고 직조기술의 발달과 재단기술이 향상되어 오늘날 남성복의 기본인 수트가 정립되었다. 또한 이는 20세기 초 정치적 경제적 강대국에 있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완벽한 재단과 무겁고 딱딱한 소재, 어두운 색을 사용하여 권위적이고 엄격한 남성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2)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남성들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생긴 사회적 공백을 여성이 메우기 시작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남녀의 동일한 라이프스타일과 여권 신장으로 인한 남녀동등사상은 의복에도 영향을 미쳐 유니섹스(Unisex)모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여성들은 소

년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남성들도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런 어깨형의 수트와 몸에 맞는 소년 같은 날씬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이숙희, 1995)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전쟁으로 인한 경제난이 가속화되면서 경제대공황을 겪게 되자 대량실업과 기아, 파업, 정치적 불안 등에 치친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환멸과 궁핍을 잊어버리고 삶을 즐기고자 하였다. 경제공황과 더불어 여성복의 소년 같은 분위기와 남성복의 날씬한 룩은 사라지고 남성복은 성숙한 남성의 이미지를 지니는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독일에 의한 프랑스의 함락, 영국의 경제적 약화를 더욱 가속화 시켰으며, 전쟁을 통해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은 남성패션 계에도 강력한 영향을 지니게 되었다. 미국적 스타일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은 의복의 착용방법, 디자인, 봉제 등의 격식완화와 스타일 및 색상, 소재 등의 다양화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 입기 시작하여 영국, 프랑스에까지 영향을 준 급진적인 신사복 스타일인 주트수트(zoot-suit)는 기존의 권위적이고 위엄 있던 정장에 대한 개념을 완화시켰으며 20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사회계층의 밑바닥에서 시작된 스타일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Mendes & Haye, 1999/2003)

이처럼 제 1, 2차 세계대전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늘이는 계기가 되어 남성중심사회가 변하기 시작하였고 전쟁으로 인해 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영향은 남성패션의 정형화된 스타일을 가볍고 젊게 바꾸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류사회의 패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깨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3)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후반까지

20세기 후반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류계층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들의 주장과 관념이 다양한 형태의 패션으로 표출됨으로써 남성패션의 틀을 깨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주류패션에 대해 반발하는 하위문화(sub-culture)는 전통적 윤리의식을 고수하는 지배문화에 대한 공공연하고 의도적인 불만을 패션으로 표현하며 스타일의 저항을 통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것에 반발하는 것이다.(Hebdige, Dick, 1979/1998)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테디 보이(Teddy Boy), 모즈(Mods), 히피(Hippie)로

이어지는 하위문화 집단들은 기존의 사회계층이나 성의 관념에 대한 도전으로 의복의 차림새에서 성의 혼돈을 초래하였다.

테디 보이들은 주로 어깨가 넓고 길이가 긴 드레이프가 지는 재킷, 우아한 벨벳칼라, 모즈족의 둥근 머리형과 라운드 칼라 셔츠, 통 좁은 바지와 미국 카우보이들의 부트레이스 타이(bootlace ties),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의 헤어스타일을 모방하였다. 또한 모즈는 1964년경 영국의 카나비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비트족의 일파로 여성스런 남성패션을 나타냈다. 그들은 둥그런 머리나 프랑스식 컷과 모헤어로 된 싱글 브레스티드 재킷의 테일러드 슬림 수트를 즐겨 입었다.(김민자, 1987)

1960년대부터는 성을 규제하는 의복단체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파괴되고 혼합되기 시작하였는데 히피(Hippie)들은 남녀 모두 머리를 길렀고 헤어밴드를 했으며 진(jeans)을 입음으로써 남녀 복식의 차별성을 초월하였다.

이 시기의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계열 페미니즘(Feminism)의 영향이 패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남녀 모두가 착용한 유니섹스 모드를 가속화시켰다. 이 때 남녀의 공통아이템으로 정착된 것은 셔츠와 블루진, 남성들의 자유스러운 헤어스타일, 히피의 에스닉 무드에 대한 애호로 인한 다양한 색채 및 소재의 수용, 남성들의 장식화 경향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김이은, 조규화, 1995)

1970년대는 마법에서 각성한 듯한 느낌과 불황, 부정적인 기분을 가졌는데 이에 기존의 것에 대한 반문화 의상의 신성화는 핑크라는 반미학적 모드를 탄생시켰다. 핑크족들은 면도기, 쇠사슬을 액세서리로 하고, 모히칸족의 헤어스타일과 머리를 핑크, 그린으로 염색하거나 의도적으로 기분 나쁜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그들은 반정부주의, 허무주의가 특징이었다. 이와 같은 핑크의 자극적인 패션은 하이패션계에 신선한 감각을 던져 주었고 확장되는 다양성의 요소들을 제공하였으며 발전된 양상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1980년대에 팽배해지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모더니즘적 문화와 사고방식의 틀을 거부하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으로 패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하게 표출되어 남성적, 여성적 코드가 혼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양성적 이미지 복식인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으로 표출되었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하이패션에서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남성복에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김경옥, 금기숙, 1998)

포스트모더니즘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주요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은 1990년대는 각기 독특한 패션을 드러내는 양성화된 남성성의 다양한 종류가 등장하였다. 술 장식과 비드, 꽃장식이 남성복에 적용되었고 남성 수트는 더욱 가늘어지고 부드러운 선으로 변하였다. 또한 남성복에서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젠더의 속성을 완전히 없애고 의무감에서 벗어난 감성적이고 자유로운 남성상을 제시하였다.(채금석, 1999)

이와 같이 20세기 후반 남성패션에 영향을 준 하위문화,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파워와 권력을 상징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성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남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여성들의 것으로 여겨져 온 자유로운 감각과 감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남성패션에 있어 남녀의 대립적인 면들을 거부한 양성적 표현은 남녀 공동의 인간 해방, 주체성의 해방과 같은 보편적인 휴머니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21세기 남성의 성 이미지

남성의 성 정체성은 하위문화적인 변형적 성 정체성이 보편화 되어 21세기에 들어서 남성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면서 남성의 성역할 변화를 은유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남성들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여성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서 남성도 가부장제의 의무감에서 해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1세기에는 책임감과 용감한 남성들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감성적이며 나약한 '신종남자'들이 생겨났다. 이에 미국에서는 성공한 아내를 위해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남편을 '트로피(trophy) 남편'이라고 부르며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알파(α)걸을 내조하는 남성을 '베타(β)남'이라고 소개하였다.(알파걸...골드미스...애완남...전통적 성역할 해체, 2008)

따라서 과거의 남성들은 강한 힘을 상징하는 근육질의 남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1세기에는 자상한 표정과 부드러운 인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는 남성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경우 ‘훈남’, ‘애완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21세기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키워드로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위버섹슈얼(Ubersexual), 크로스섹슈얼(Crosssexual) 현상들이 나타났다.

메트로섹슈얼이라는 용어는 1994년 영국의 영화 비평가 마크 심슨(Mark Simpson)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지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마크 심슨은 2002년 7월 22일자 인터넷 미디어인 살롱(www.salon.com)에 실린 ‘메트로섹슈얼과 만나자’란 칼럼에서 메트로섹슈얼은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가까이 살면서 초호화 상점과 클럽, 피트니스 클럽, 고급미용실에서 활발하게 소비활동을 하는 젊은 남자로 묘사했다. (“Meet the Metrosexual”, 2002) 그는 이 칼럼에서 축구선수 데이비드 벡햄(David Beckham)을 메트로섹슈얼이라 규정하면서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메트로섹슈얼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는데 드라마에서 패셔너블하고 남성다운 면서 연약한 감성을 지닌 모습을 보여주었던 배용준, 송승헌, 김래원, 권상우 등은 메트로섹슈얼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한편 위버섹슈얼이라는 용어는 2005년 매리언 살츠먼의 저서 ‘남자의 미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위버섹슈얼은 열정적이며 스타일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 이는 자신감 있는 남성이지만 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는 않으며 모든 행동에 있어 남자다운 면을 전제로 한다. 매리언 살츠먼은 그룹 U2의 싱어 보노(Bono),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 등이 위버섹슈얼의 전형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CF계에서는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입은 귀공자형 꽃미남에서 남성성이 강조된 거친 듯 부드러운 남성들이 등장했다. ‘지오다노’와 ‘삼성 케녹스’ CF의 장동건, ‘젠트라’와 ‘빈폴’ CF의 다니엘 헤니가 대표적인 예이며 탤런트 김주혁은 한국형 위버섹슈얼의 대표주자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위버섹슈얼 경향”, 2005)

크로스섹슈얼은 메트로섹슈얼의 외모 가꾸기 차원을 넘어서 여성들의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화장 등을 하나의 패션 코드로 생각하여 치장을 즐기는 남성으로서, 패션 외에 행동이나 말투 등이 남성답다는 점에 태생적으로 여자 같은 남자와는 확실히 구별된다.(외모만 여성스럽게 크로스섹슈얼이 뜬다, 2006) 이는 남성 속 여성

성에 환호하는 양성화 경향으로 남성으로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경향을 한 차원 넘어선 새로운 패션 트렌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성적 이미지로 데이비드 벡햄은 종종 스커트를 입으며 특히 테니스와 골프 등의 운동용 스커트, 스커트 잠옷 심지어 매우 짧은 외출용 미니스커트까지 ‘남성용 치마’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판매하는 의상디자이너가 화제를 낳았다.(남자도 치마 입어야 편하다 남성용 치마잠옷 화제, 2005)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2월에 개봉되어 큰 인기를 얻었던 영화 ‘왕의 남자’에서 이준기가 보여준 이미지가 크로스섹슈얼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의 외모 가꾸기에 대한 관심은 외모지상주의 문화를 꼬집는 루키즘(Lookism)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의 뷰티에 해당하는 남성의 미용용어인 그루밍(grooming)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그루밍은 남성의 피부관리, 두발, 치아는 물론 성형수술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김민주, 2008) 또한 외모를 가꾸는 남성의 연령대도 20대에서 중년층으로 확대되면서 이른바 노모족(No More Uncle)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변화되는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은 자기를 가꾸고자 하는 남성의 소비욕구를 뷰티산업업계에서 상업화 전략으로 남성계층을 공략하고 있으며 21세기 남성들은 가장 능동적인 소비층으로, 최근에는 국내외 화장품 업체들이 여성취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남성들의 피부미용이나 화장품쇼핑을 일반화 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남성전용 미용실과 피부 관리실도 앞 다투어 생기는 등 여성의 전용물이라고 여겨지던 미용, 패션에 관련된 뷰티산업이 확산되고 있다.(조은주, 2004)

이제 남성성은 변하였다. 문화 지향적이고 새로운 감성을 지닌 21세기 남성들은 자신만의 패션 감각과 성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남성패션은 남성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영역까지 범위를 넓혀가며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IV. 21세기 남성패션에 표현된 조형성 분석

본 장에서는 21세기 남성패션에 표현된 조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1세기 남성패션에 표현된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패션관련 매체물에서 우선순위에 속해 있고 2001년 S/S부터 2008년 S/S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남성복 컬렉

선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www.samsungdesign.net, www.style.com, www.sfc.seoul.kr의 패션시각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1세기 남성패션에 표현된 조형성 사진 256장을 선정하였고 정확한 분석과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조형적 특징이 가장 비중있게 드러나는지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5명이 검토를 하고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21세기 남성패션에 표현된 조형성을 귀족적 댄디즘(Noble Dandyism), 양성적 캐포티즘(Bisexual Caportism), 마초적 나르시시즘(Macho Narcissism), 음프 파탈 뱀피시즘(Homme Fatale Vampicism)으로 분류하여 패션의 실루엣, 소재, 색,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고찰·분석하였다.

1. 귀족적 댄디즘(Noble Dandyism)

댄디란 '멋쟁이 남자'라는 의미로, 몸치장과 의복 착용법에 있어서 최고의 우아함을 대표하는 남성을 말한다. 따라서 댄디즘은 댄디들의 우아하고 세련된 생활태도를 의미하며 그것은 몸치장과 우아함에 대한 무절제한 취미가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귀족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다.(이미숙, 조규화, 1999)

댄디즘은 19세기 초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브럼멜(Brummell)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의복에서 그의 구별적인 우아함과 열정적인 절제는 그를 15년 이상 런던의 우아함의 권위자로 만들었는데 그는 탁월한 몸치장과 그것에 관한 계율 그리고 불가사의한 풍류의 가르침 등으로 인해 보(beau) 브럼멜 이라는 별칭을 가지기도 하였다.(김희균, 2006) 이때부터 댄디는 절대적인 취향을 갖춘 사람으로 통용되었으며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형용사인 'fine'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되었다.

댄디 복식의 특징은 정확히 재단하여 신체 각 부위에 빈틈없이 맞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식을 제거하고 형태중심의 단순미를 추구하면서 의상의 각 부분이 이루는 우아한 색조의 배합을 복식미의 생명으로 삼았다. 또한 텍스처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했으며 크라바트를 통해 유행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였다.

홀록(Hurlock)은 유행의 변화는 항상 전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의복은 과거시대가 채택했던 스타일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채택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댄디즘은 21

세기 남성패션에서 부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1세기 남성복은 현대적 감성이 가미된 테일러링 수트로, 완벽한 패턴과 고급스러운 소재, 다양한 채도의 블랙이 댄디한 감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리본, 보타이, 크라바트식의 스카프 등 다양한 네크라인 장식물들이 셔츠와 어울려 화려하게 연출됨으로써 댄디즘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댄디 복식의 영향으로, 재킷의 라펠에 새틴이나 패치로 디테일을 강화하고 실루엣을 드러내며 특히 가슴 허리가 귀족적 요소로 간주되어 허리를 강조한 스타일이 귀족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귀족적 댄디즘(Noble Dandyism)은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남성복의 유행으로 럭셔리하면서도 부드러우며 세련되기까지 한 귀족이미지의 댄디한 남성을 반영하는 조형성으로 고찰하였다.

실루엣은 좁아진 어깨선의 몸에 맞게 재단된 재킷과 몸에 피트되는 팬츠로 슬림하며 잘록한 허리선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소재는 새틴느낌의 실크, 벨벳 등 부드러우면서 유연한 재질과 광택이 있는 고급스러운 직물이 사용되었으며 핀 스트라이프와 작은 체크문양 등으로 은은한 우아함을 표현하였다.

색은 블랙, 그레이, 화이트 등의 무채색과 파스텔 톤이 나타났으며 특히 다양한 채도의 붉은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신비롭고 우아한 감성을 표현하였다.

액세서리는 고급스런 소품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행커치프, 브로치, 피 등과 빅 백과 숄더백, 클러치 등의 가방을 통해 귀족적이고 세련된 감성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그림 1]은 고급스럽고 광택이 나는 소재의 그린계열 재킷이 화려한 꽃문양으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였으며 하늘거리는 그린블라우스는 깃을 세워 스카프를 맨 모습이 재킷과 조화를 이루어 귀족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소재와 문양에서 주는 풍부한 감성이 기품을 한층 강조하여 나타난다.

[그림 2]는 다리선을 드러내는 체크문양의 팬츠와 허리를 강조한 블루벨벳재킷이 부드럽고 은은하게 빛이나 우아함을 표현하였다. 허리를 강조한 실루엣과 벨벳소재의 조화가 귀족적 이미지로 보이며 재킷의 브로치 또한 감각적인 멋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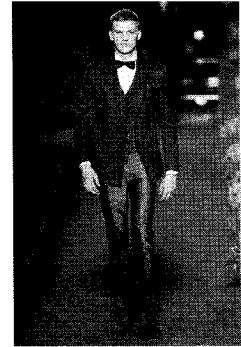
[그림 3]은 고급스런 소재의 쓰리피스 수트로, 작은 체크문양의 오렌지팬츠, 트위드 소재의 붉은계열 베스트, 실키한 재질의 고급스런 광택이 나는 레드재킷은 다양한



[그림 1] 2002 F/W
Roberto Cavalli



[그림 2] 2005 F/W
Dolce & Gabbana



[그림 3] 2008 F/W Etro

채도의 붉은 계열의 색을 각각의 아이템에 사용하여 신비롭고 우아한 감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붉은 계열의 매끈한 보타이, 퍼플과 핑크, 붉은 계열이 담긴 행커치프와 함께 귀족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2. 양성적 캐포티즘 (Bisexual Caportism)

캐포츠크(Caports Look)은 캐주얼웨어(casual wear)와 스포츠웨어(sports wear)의 합성어로, 운동할 때 입는 옷을 일상복처럼 입는 것을 의미한다.(김민주, 2008)

스포츠웨어의 기능성과 캐주얼웨어의 활동성, 패션성이 가미된 캐포츠크는 원래 스포츠웨어의 개념인 경기를 위한 운동복에 개인적인 건강이나 유희를 위한 복장의 개념까지 포함되었다. 즉 캐포츠크는 곧 생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스포츠웨어를 지향함으로써 스포츠 경기 시뿐만 아니라 캐주얼 룩으로도 연출해 낼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언포멀(un-formal)한 가벼운 의상이라는 개념으로 통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패션의 에이저리스(ageless) 현상은 패션을 연령에 의해 얽매이는 일없이 자신의 취미,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나이답게 차려입어야 한다는 기존의 착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패션의 젊음지향을 부추겼다.

21세기 문화현상중의 하나인 키덜트(kidult) 또한 이러한 경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키덜트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유지할 정도로 천진난만하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으로 사회가 개방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어른은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으나 개방적 사회로 바뀌면서 50대도 ‘마음은 10대’ 라고 주장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효진,

2003) 이에 따라 젊음의 유지와 보다 젊어 보이기 위해 발달하고 생동감 있는 캐포츠크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적 캐포티즘(Bisexual Caportism)은 현대인에게 ‘젊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이 시대의 트렌드와 부합하여 남녀노소의 경계 없이 캐포츠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건강함과 역동성, 젊음, 아름다움 등이 패션과 접목된 조형성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여성과 남성 간의 이분법적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면서 상호 대립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한데 뒤섞이는 현상이 두드러짐으로써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바이섹슈얼 경향을 보였다.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슬림한 실루엣으로, 얇고 소프트한 과거, 슬리브리스(sleeveless)셔츠, 베스트탑(Vest-Top) 등의 상의와 다양한 색의 진과 짧은 길이의 반바지 등의 하의는 해체된 성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소재는 부드러운 면, 실키한 저지, 나일론, 니트, 데님 등으로 부드러우면서 가벼운 소재와 비닐 가공된 소재 등을 볼 수 있으며 문양은 귀족적 댄디즘의 조형성과는 달리 선명한 색 배합을 이루는 스트라이프와 체크 문양 등으로 표현하였다.

색은 비비드한 원색과 캔디컬러들을 통해 감미롭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액세서리는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의 머플러와 스니커즈, 부츠 등의 신발을 통해 생동감 있고 발달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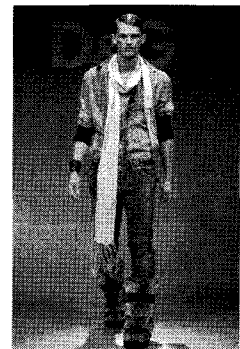
[그림 4]는 저지소재의 화이트가 많이 섞인 블루 마이 크로 샷츠와 핑크와 오렌지의 기하학적 문양 셔츠가 사랑스런 알록달록한 색을 사용하여 로맨틱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색들은 선명하지만 비비드한 색보다는 강렬하지 않고 파스텔에 가까우면서 투명감이 강조된 ‘캔디 컬러(candy color)’ 라 부르는데 특히 양성적 캐포티즘 이미지에서 부각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4] 2004 S/S Missoni



[그림 5] 2005 S/S Dior Homme



[그림 6] 2005 F/W D&G

[그림 5]는 선명한 체크문양의 슬리브리스 셔츠와 타이트한 핫핑크 진, 가볍게 두른 스트라이프 머플러가 붙들린 긴 헤어스타일과 함께 여성스런 이미지를 자아내어 성의 경계가 모호함이 나타났다. [그림 6]의 진과 데님셔츠는 대표적인 젊음을 지향하는 아이템으로 길게 내려오는 머플러와 퍼부츠를 매치하여 보다 발랄하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3. 마초적 나르시시즘 (Macho Narcissism)

마초(Macho)의 사전적 의미는 씩씩한, 사내다움을 뜻하며 권위적이고 압제적인 우람한 근육질의 강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왔다. 그러나 21세기에서의 마초적 이미지는 오히려 잘 다듬어져 조각 같은 근육질의 아름다운 몸으로 표현되고 있다.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마치 성 대상처럼 다루어서 성적 쾌감을 품고 이를 바라보며 어루만지고 애무하여 마침내는 완전한 만족상태에 도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김덕자, 1993) 따라서 이성간의 '보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성적 욕구 이외에 자기도취적인 나르시시즘 속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여지기를 원하는' 성적 욕구를 유발한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자기과시의 쾌감이 관음증(Voyeurism)욕구의 변형이라고 보았다. 노출증은 자기 몸을 바라보는 자기성애적 활동에서 비롯되는데 일종의 비교절차로 다른 사람의 육체를 바라보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관음증 욕구가 다시 자기 몸을 향하게 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봐주었으면 하는 새로운 수동적 목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새로운 주체가 형성된 것이다.(김민자, 2004)

여성은 남성보다 심리적으로 미성숙하여 나르시시즘

경향이 있으므로 더욱 옷으로 치장함으로써 관심을 끌며 허영심을 충족한다고 하였는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여성이 자아도취적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남성 역시 자아도취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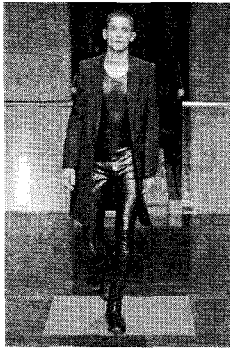
특히 소비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남성도 자신의 노출된 육체나 의상과 스타일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강조하게 되었다. 여성은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남성의 응시대상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파괴되면서 여성 또한 남성을 응시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남성의 신체를 성적대상화 시켰다.

따라서 마초적 나르시시즘(Macho Narcissism)은 과거의 남성의 힘과 용기를 나타내었던 우람한 근육질 대신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몸을 드러내며 과시하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조형성으로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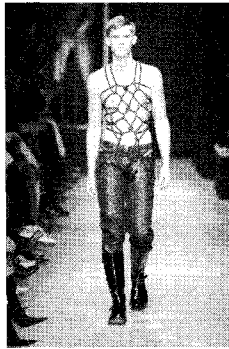
실루엣은 노출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를 드러내거나 밀착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체의 윤곽선을 드러내었으며 전체적으로 인체선을 따라 피트되면서 복잡하지 않은 미니멀한 형태로 나타났다.

소재는 마초적 나르시시즘 이미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투명하게 비치는 소재와 몸에 밀착되는 스트레치 소재를 통해 표현되었다. 즉 투명하게 비치는 소재인 시폰, 레이스, 망사 등으로 신체에 밀착시키거나 신체라인을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은밀하게 가시화되었으며 또한 몸에 밀착되는 고무, 라텍스, 가죽 등과 같은 스트레치 소재는 관능적으로 꼭 끼이면서 매끄럽게 흐르는 시각적 효과로 인해 에로틱한 관능미를 표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몸에 꼭 붙는 옷을 입는 것은 타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지각해주시기를 바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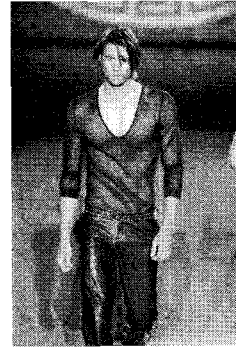
색은 관능적인 블랙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액세서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남성의 몸 이미지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그림 7] 2005 S/S Raf Simons



[그림 8] 2005 F/W Andrew Mackenzie



[그림 9] 2006 S/S Versace

[그림 7]의 블랙가죽팬츠로 신체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은 신체 밀착의 효과가 극도로 발휘되어 에로틱한 관능미를 표현하고 있다. 가죽은 관능적으로 꼭 끼어 신체의 선을 그대로 드러내며 동물의 껍질로 사람의 피부를 연상시킴으로써 보다 자극적으로 보인다.

[그림 8]의 블랙 가죽 끈으로 싱글게 엮은 홀터넥 탑은 가슴과 맨살을 그대로 드러내어 자극적인 관능미를 보이고 있으며 언더웨어와 팬츠를 연결한 듯한 로라이즈(Low-rise) 블랙팬츠 또한 골반을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에로틱함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림 9]는 블랙가죽팬츠와 파임이 깊고 밀착된 속이 비치는 망사소재를 통해 다듬어진 몸을 드러내며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부를 투명하게 드러내 비치는 경향은 보여지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알 수 있다.

4. 옴므 파탈 뱀피시즘 (Homme Fatale Vampirism)

팜므 파탈(Femme fatale)은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외모와 관능적이고 신비한 매력으로 남성들을 매혹하여 성적으로 종속시키거나 치명적 불행을 야기 시키는 여성들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어왔다. ‘팜므(femme)’는 ‘여성’을 의미한 명사이고 ‘파탈(fatale)’은 ‘숙명적인, 치명적인, 필연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이 두 단어의 복합어인 팜므 파탈은 한국어로 ‘요부(妖婦)’이며 영어로는 ‘fatale women(치명적인 여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윤보원, 2005)

이러한 의미에서 뱀프(Vamp) 이미지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뱀프는 ‘요부, 바람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키플링(Joseph Rudyard Kipling)의 시 ‘뱀파이어’를 영화화한 ‘광대의 천국(A Fool There Was)’(1914)에서 바라(Thea Bara)가 연기

했던 여인 역할에서 유래된 이래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남성을 유혹하여 파멸에까지 이르게 하는 여인상을 가리키게 되었다.

최근에는 ‘팜므 파탈’의 남성형인 ‘옴므 파탈(Homme Fatale)’이 등장하였는데 여성에게만 허락되었던 치명적인 매력을 남성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최신 트렌드라 할 수 있다. 옴므파탈은 화보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신드롬까지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 ‘프라이스리스(Priceless)’와 국내 영화 ‘비스트 보이즈(Beastie Boys)’ 등에서 나타난 남성들은 여성에게 간택되어 물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천박한 몰신주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영화평론가 심영섭씨는 “가부장제에서 몸을 팔아서는 안되는 남성들이 여자들처럼 몸을 팔기 시작했고 팜므 파탈이 아니라 옴므 파탈이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나이·경제력...스크린 속 남녀관계 역전, 2008)

21세기 남성들은 사회화된 성 정체성을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적 욕구를 잘 반영하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섬세하고 유연한 세련된 감성과 취향을 가진 남성들이 두드러짐으로써 남성패션에서도 관능적인 여성미를 과장해서 부각시킨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옴므 파탈 뱀피시즘(Homme Fatale Vampirism)은 여성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남자라는 뜻을 가진 옴므 파탈과 요염한 여성다움을 표현한 뱀프라는 두 단어를 합한 의미로, 실루엣, 소재, 색, 액세서리 등에서 두드러지는 해체된 여성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특히 다리를 드러낸 스커트와 진한 화장, 긴 머리와 곱슬거리는 헤어스타일을 통해 성적매력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요염하게 표현된 조형성으로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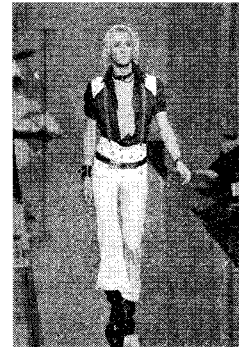
실루엣은 신체의 라인을 보여주는 슬림한 실루엣이며 어깨를 드러낸 탑(top)과 허리를 강조한 하이웨이스트 팬



[그림 10] 2004 S/S
Helmut Lang



[그림 11] 2006 S/S
Vivienne Westwood



[그림 12] 2008 S/S
Jean Paul Gaultier

츠, 다리를 드러낸 스커트를 통해 교태롭고 해체된 여성의 이미지가 남성에게 적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소재는 시폰, 레이스, 니트 등 부드러우며 얇고 비치는 소재와 실크와 같은 광택감이 있는 소재, 시퀸, 비즈장식 등을 사용하였다.

색은 블루, 핑크, 레드 등이 다양한 아이템에 사용되었으며 액세서리는 다른 이미지의 조형성과는 달리 진한 화장과 긴머리, 곱슬거리는 헤어스타일이 부각되어 요염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림 10]은 비대칭 디테일의 블랙 탱크 탑(Tank Top)이 과감하게 절개 되어 페티시즘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으며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와 와이드한 버클 벨트가 어우러져 요염한 남성미로 보인다.

[그림 11]은 실크소재의 플레어스커트에 헐렁한 셔츠의 단추를 허리까지 풀어 보임으로써 고전적 남성이미지가 해체되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하이웨이

스트 하렘(Harem)팬츠와 셔츠의 깃을 세워 허리까지 단추를 풀어헤치고 초커목걸이, 와이드한 팔찌와의 조화가 도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특히 진한화장과 금발로 염색한 머리는 교태로운 남성미를 강조하고 있다.

<표 1>은 21세기 남성패션에 표현된 조형성을 정리한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남성패션에 표현된 성 이미지를 고찰분석하고 21세기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변화 현상 및 특성을 조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후반까지 남성패션에서의 성 이미지를 살펴보면 권위적이고 엄격한 남성의 이미지에서 전통적인 남성성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남성들로 하여

[표 1] 21세기 남성패션에 표현된 조형성

조형별 요소	이미지	귀족적 댄디즘	양성적 캐프티즘	마초적 나르시시즘	옴므 파탈 뱀피시즘
이미지		·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세련된 남성의 귀족이미지	· 바이섹슈얼 경향의 역동성, 젊음,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남성의 이미지	·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몸을 드러내며 성적매력을 극대화한 남성성의 이미지	· 해체된 여성의 이미지와 같은 요염한 남성의 이미지
실루엣		· 피티드 실루엣 · 좁아진 어깨선의 몸에 맞게 재단된 재킷과 몸에 피트되는 팬츠로 허리선을 강조하는 경향	· 슬림한 실루엣 · 얇고 소프트한 파카, 슬리브리스 셔츠, 베스트 탑 등의 상의와 다양한 색의 진 셔츠 등의 팬츠	· 노출과 밀착을 통해 몸매를 드러내는 밀착된 실루엣	· 슬림한 실루엣 · 어깨를 드러낸 탑과 허리를 강조한 하이웨이스트 팬츠, 다리를 드러낸 스커트
소재		· 실크, 벨벳 등 · 문양: 우아한 편 스트라이프와 작은 체크문양 등	· 면, 저지, 데님 등 · 문양: 선명한 색 배합을 이루는 스트라이프와 체크문양 등	· 비치는 소재(시폰, 망사, 레이스 등)와 스트레치 소재(고무, 라텍스, 가죽 등)	· 얇고 비치는 소재와 실크와 같은 광택감이 있는 소재 · 시퀸, 비즈장식 등
색		· 무채색과 파스텔 톤, 다양한 채도의 붉은 계열의 색	· 비비드한 원색과 캔디컬러	· 관능적인 블랙이 주로 사용	· 블루, 핑크, 레드 등이 다양한 아이템에 사용
액세서리		· 행커치프, 브로치, 피 등 고급스러운 소품류가 다양	· 가벼운 머플러, 스니커즈, 부츠 등 발랄한 소품류	· 몸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이 초점으로 액세서리는 거의 보이지 않음.	· 액세서리보다는 메이크업이 부각

금 지금까지 여성들의 것으로 여겨져 온 자유로운 감성과 감각을 자유롭게 표출하였다. 그리하여 남성의 성 정체성은 하위문화적인 변형적 성 정체성이 보편화되어 21세기에 들어서 남성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면서 남성의 성역할 변화를 은유적으로 시사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족적 댄디즘은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남성복의 유행으로 럭셔리하면서도 부드러우며 세련되기까지 한 귀족이미지의 댄디한 남성을 반영하는 조형성으로 고찰하였다. 피티드 실루엣으로 잘록한 허리선을 강조하여 귀족적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실크, 벨벳 등 부드러운 재질과 광택이 있는 고급스러운 소재가 사용되었다. 핀 스트라이프와 작은 체크 등의 문양 등으로 은은한 우아함을 표현하였으며 무채색을 기본으로 파스텔 톤과 다양한 채도의 붉은 계열의 색이 사용되었다. 특히 행커치프, 브로치, 썸 등 고급스러운 소품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양성적 캐포티즘은 현대인에게 ‘젊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이 시대의 트렌드와 부합하여 남녀노소의 경계 없이 캐포츨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건강함과 역동성, 젊음, 아름다움 등이 패션과 접목된 조형성으로 고찰하였다. 슬림한 실루엣으로 면, 저지, 데님 등 부드러우면서 가벼운 소재와 비닐 가공된 소재들이 나타났으며 선명한 색 배합을 이루는 스트라이프와 체크 등의 기하학적 문양이 나타났다. 특히 비비드한 원색과 캔디컬러들로 양성적 캐포티즘이 부각되었으며 액세서리는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의 머플러와 스니커즈, 부츠 등의 신발을 볼 수 있었다.

마초적 나르시시즘은 과거의 마초적 이미지가 권위적이고 압제적인 근육질의 강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왔으나 21세기에는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몸을 노출을 통해 과시하며 보여지기를 원하는 이미지의 조형성으로 고찰하였다. 얇고 가벼우며 비치는 소재와 스트레치 소재 등을 사용하여 노출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를 드러내거나 밀착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체의 윤곽선을 드러내었다. 주로 블랙을 사용하여 관능적으로 표현하였고 몸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이 초점으로 액세서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옴므 파탈 뱀피시즘은 실루엣, 소재, 색, 액세서리 등에서 두드러지는 해체된 여성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특히 다리를 드러내는 스커트와 진한 화장, 긴 머리와 곱슬거리는 헤어스타일을 통해 성적매력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요염하게 표현된 이미지로 고찰하였다. 슬림한 실루엣으로, 시폰, 레이스, 니트 등 얇고 비치는 소재와 실크

와 같은 광택감이 있는 소재가 나타났고 블루, 핑크, 레드 등이 다양한 아이템에 사용되었다. 다른 이미지의 조형성과는 달리 액세서리보다는 메이크업이 부각되었다.

패션은 문화의 일부로서 사회 문화적 현상과 함께 변화하고 재구성되며 이에 따라 남성패션도 성역할 변화에 의해 재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성 이미지와 관련된 남성패션을 고찰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남성의 이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최근 현상들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남성패션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성이미지, 귀족적 댄디즘, 양성적 캐포티즘, 마초적 나르시시즘, 옴므 파탈 뱀피시즘

참 고 문 헌

- 김경옥, 금기숙. (1998). 현대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36, 239-262.
- 김덕자. (1993). **광고와 에로티시즘**. 서울: 미진사.
- 김민자. (1987). 2차 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와 Punks 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11(2), 69-82.
- 김민주. (2008). **2008 트렌드 키워드**. 서울: 미래의 창.
-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2**. 서울: 교문사.
- 김윤경, 이경희. (2002). 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52(4), 51-63.
- 김이은, 조규화. (1995).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균. (2006). 현대 남성 슈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댄디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이·경제력...스크린 속 남녀관계 역전. (2008, 5. 8). **세계일보**. 자료검색일 2008, 11. 15, 자료출처 <http://www.segye.com>
- 남자가 쇼핑하면 남세우스럽다? 이젠 남자스럽다!. (2007. 4. 26).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08, 10. 21, 자료출처 <http://www.chosun.com>
- 남자도 치마 입어야 편하다 남성용 치마잠옷 화제. (2005, 9. 21). **팝뉴스**. 자료검색일 2008, 10. 16, 자료출처 <http://www.popnews.co.kr>
- 마초. **다음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8, 11. 9, 자료출처

- http://enc.daum.net/dic100
- 매리언 살츠먼. **남자의 미래**. 이현두 옮김 (2006). 서울: 김영사.
- 뱀프. **네이버용어사전**. 자료검색일 2008, 10. 27, 자료출처 <http://www.naver.co.kr>
- 알파걸...골드미스...애완남...전통적 性역할 해체. (2008, 2. 1). **세계일보**. 자료검색일 2008, 6. 23, 자료출처 <http://www.segye.com>
- 이미숙, 조규화. (1999). 탤리 복식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3(3), 39-48.
- 이민선. (2003). 권력과 남성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복식문화학회지**, 11(2), 177-192.
- 이숙희. (1995). 남성패션의 변천 및 특성에 관한 연구-188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복식학회지**, 19(3), 397-415.
- 2004년, 우리시대 조용한 혁명. (2004). **제일기획**. 자료검색일 2008, 12. 5, 자료출처 <http://www.cheil.co.kr>
- 외모만 여성스럽게 크로스섹슈얼이 뜬다. (2006, 1. 7).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08, 6. 23, 자료출처 <http://www.donga.com>
- 조규화, 이희승. (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 조은주. (2004). 대중문화에 나타난 Metrosexual 현상과 패션 이미지 특성.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줄리아 우드. (1998). 한희정 옮김 (2006). **젠더에 갇힌 삶**.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채금석. (1999). 현대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 -시대별 대표적 디자이너와 그 특성을 중심으로. **복식학회지**, 44, 37-56.
- 한국의 위버섹슈얼 경향. (2005, 10. 15).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08, 9. 3, 자료출처 <http://www.chosun.com>
- Hebdige Dick. (1979). 이동연 옮김 (1998).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서울: 현실문화연구
- Meet the Metrosexual. (2002, 7. 22). **살롱닷컴**. 자료검색일 2008, 12. 2, 자료출처 <http://www.salon.com>
- Mendes, Valerie., & Amy de la Haye. (1999). 김정은 옮김 (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사.

접수일 : 2009. 03. 12.
 수정완료일 : 2009. 07. 22.
 게재확정일 : 2009. 07. 23.